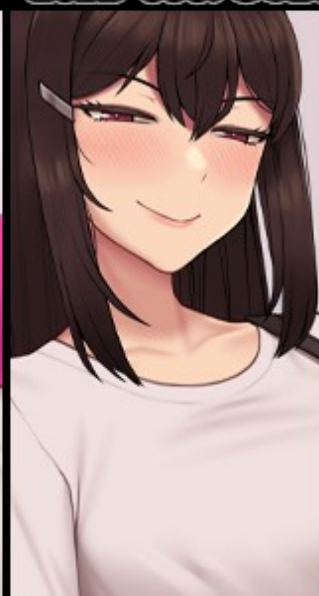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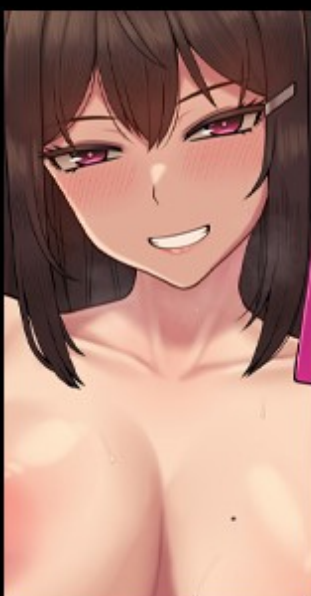


2022-06 JPG SET





ゆみ



今日



ゆみ

今話せる？

22:46

既読
22:48

どうした？

クリスマスの夜

何事もなかったかのように
メッセージを送ってきた彼女

しかし、いつもと
違う感じだった





ゆみ



今日



ゆみ

あんた、好きな子いないの？

22:48

既読
22:48

え

既読
22:49

急に…なんで？



ゆみ

答えて

22:49

メッセージを返すと
同時に既読が付き、
すぐ返信が来た

なんだか軽く見過ぎたら、
ダメな気がした





ゆみ



今日

既読
22:50

好きというか…

既読
22:50

好きになる前、というか…



ゆみ

…どうゆう意味？

22:50





去年新歓コンパに流されるまま
行くことになった時

王様ゲームや一気コールの
騒がしい感じで、あまり
居心地は良くなかった



その時、俺のとなりに
座っていた女の子は

顔が真っ赤で、
もう完全に酔っていた

あ、あの……

大丈夫、
ですか？

あ……？は、はい……！

…その、ヒクッ

お、お酒…苦手で…





隅の方にいた僕とあの子みたいな
陰キヤは誰も気にかけてなくて、

あの子を助けるつもりで回ってきた
酒をかわりに飲んでいたら、

「おっ！いい飲みっぷり〜！」と
先輩達が調子にのってどんどん回ってきて…



程なく酔いつぶれて、

その後どうなったかは
わからず終いだった



ゆみ



今日



ゆみ

それで、その子とはどうだったの？

22:55

既読
22:55

…あの日以来会った事はない

既読
22:55

講義とか色々忙しかったし…

既読
22:56

何より…名前も知らなかったから



ゆみ

ふーん

22:56



ゆみ

その子、あんたの事どう思ってるかな？

22:57

既読
22:57

…わかんない

既読
22:58

酔って俺の事覚えてないかもしれないし





ゆみ



今日



ゆみ

多分、だけどさ

22:58



ゆみ

その子もあんたの事、好きだと思うよ

22:59

既読
22:59

…どうして？





ゆみ



今日



ゆみ

あたしならそう思う

22:59





ゆみ



今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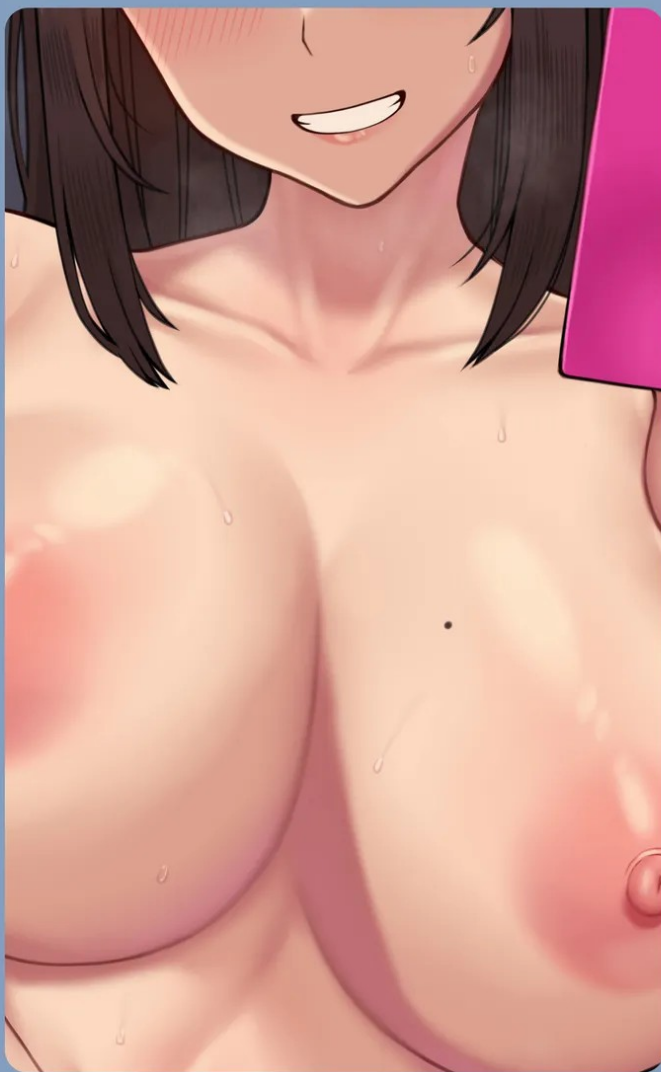
ゆみ

あたしならそう思う

22:59



ゆみ



23:00



ゆみ

おやすみ♥

23:00





彼女が送った写真は、誰かと
セックスしている写真ではなかった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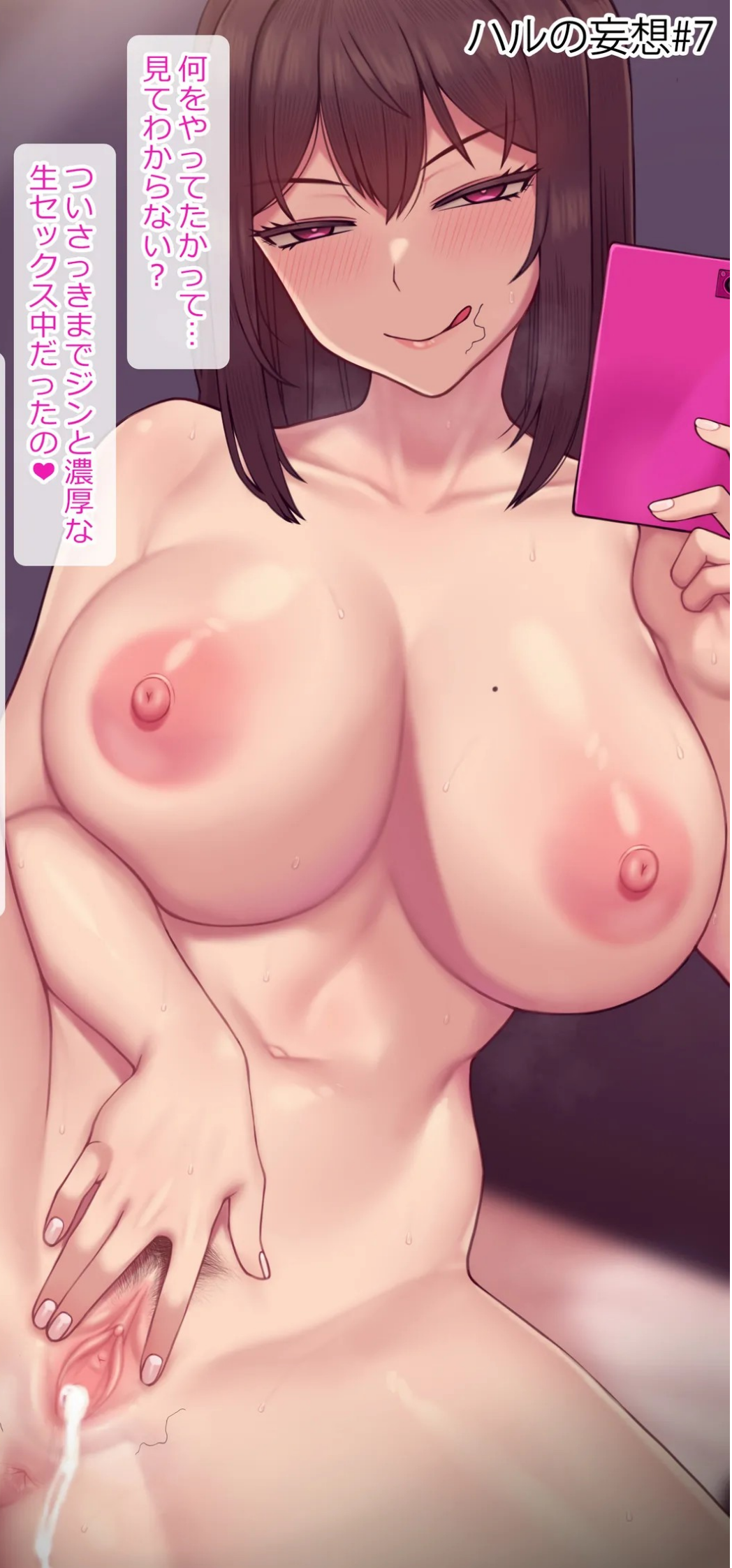
この日は三発も
抜いてしまった

何をやってたかって…
見てわからない？

ついさっきまでジンと濃厚な
生セックス中だったの♡

アンタの好きな子も、女にハメる事しか
考えてない先輩たちにこうやって
中出しされちゃったかもね♡

その場からアンタが連れ出してあげてれば、
アンタの女になってたかもしれないのに…♡





유미



오늘



유미

지금 대화 가능해?

22:46

읽음
22:48

무슨일이야?

크리스마스의 저녁

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
메세지를 보내온 그녀

그러나 평소와는
조금 다른 느낌이었다





유미



오늘



유미

너, 좋아하는 여자애 없어?

22:48

읽음
22:48

에

읽음
22:49

갑자기...왜?



유미

대답해줘

22:49

답장과 동시에 읽음이 뜨고,
곧바로 답장이 왔다

...왠지 가볍게 넘어간다면
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





유미



오늘

읽음
22:50

좋아한달까...

읽음
22:50

좋아하게 되기전, 이라고 할까...



유미

...무슨 의미야?

22:50





작년 신입생 환영회에
떠밀리듯 가게 됐을때

술게임으로 원샷하는 떠들썩한
분위기가 그다지 적응되지 않았어

A man and a woman are sitting at a bar. The woman, on the left, has short dark hair and wears glasses. She is holding a large mug of beer. The man, on the right, has short dark hair and is also holding a large mug of beer. They are both looking down at their mugs. The background shows a bar counter with some numbers like '90' and '150' visible.

그때, 내 옆에
앉아있던 여자애는

얼굴이 빨강게 되선,
이미 완전히 취해있었어



저, 저기……

괜찮…아요?

아…?
네, 네에…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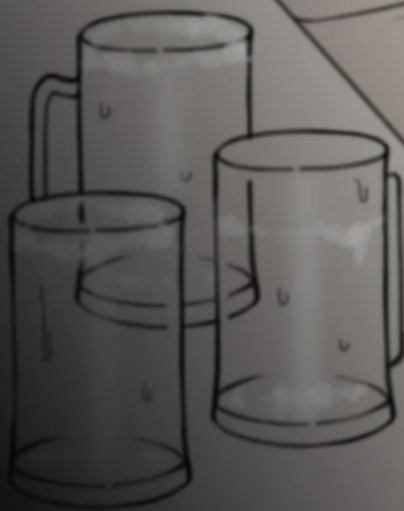
…그, 히끗

수, 술…
서툴러서…

구석에 있던 그 애한테
아무도 신경쓰지 않았고,

겔 도울 생각으로 돌아온
술을 대신 마시고 있었더니

「오! 흑기사~!」라며
선배들이 점점 더 마시게 해서...





얼마 지나지 않아
골아 떨어지고,

그 뒤 어떻게 된진
모른채 끝나버렸어



유미



오늘



유미

그래서, 그 애랑 어떻게 됐는데?

22:55

읽음
22:55

...그날 이후로 만난적은 없어

읽음
22:55

강의라던지 이래저래 바빴고...

읽음
22:56

뭇보다... 이름도 몰랐으니까



유미

흐음

22:56



유미

그 애, 널 어떻게 생각했을까?

22:57

읽음
22:57

...잘 모르겠어

읽음
22:58

취해서 날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





유미



오늘



유미

아마도...이지만 말야

22:58



유미

개도 너를 좋아할거라 생각해

22:59

읽음
22:59

...어째서?





유미



오늘



유미

나라면 그랬을거야

22:59





유미



오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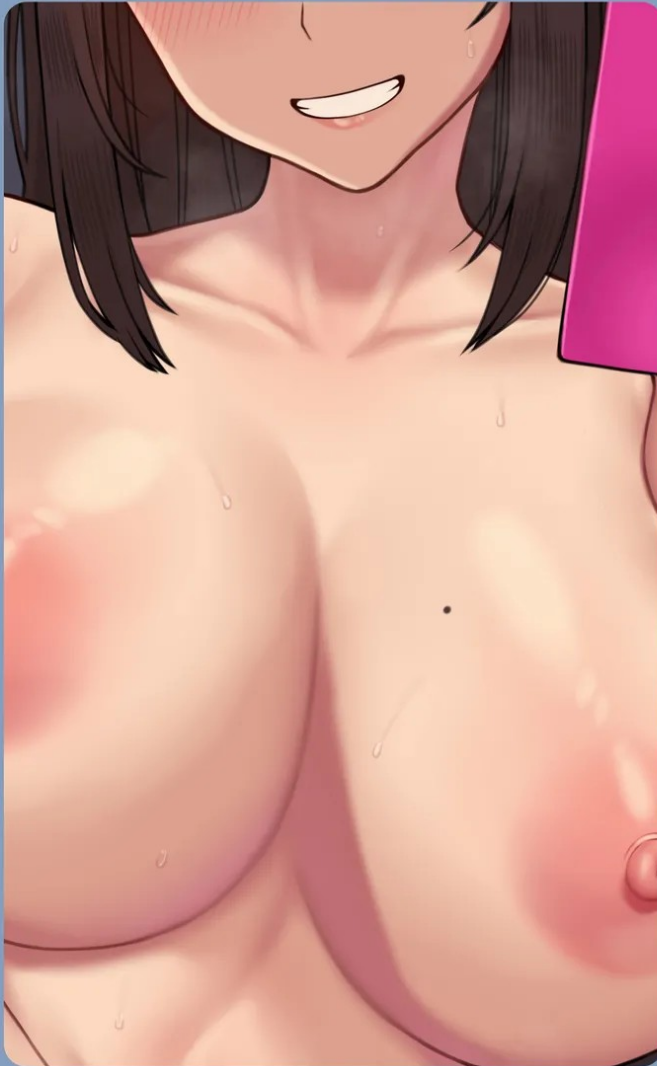
유미

나라면 그랬을거야

22:59



유미



23:00



유미

잘자♥

23:00





그녀가 보내온 사진은
누군가와 섹스하고 있는건
아니었지만,

이날은
세발이나 뺨을 정도로
야한 사진이었다

뭐 하고 있었냐니...
보면 모르겠어?

방금 전까지 호진이랑
농후한 노곤 섹스중이었다구♥

네가 좋아하던 애도,
여자 따먹을 생각밖에 없는
선배들에게 이렇게 질내사정
당해버렸을지도♥

그 자리에서 네가
데리고 나갔다면,
네 여자가 되었을지도
몰랐을텐데말야...♥

















教室を出ると、友達と
一緒に出た彼女を見かけた

彼女は陽キャの
スクールカースト上位勢であり、

普通なら俺みたいなの
陰キャとは接点なんて無い



あ

…目が合った



俺を見て微笑みを浮かべながら
彼女はスカートの裾を掴んだ

ふと、昨日の
メッセージを思い出す



ゆみ



今日



ゆみ



22:08



ゆみ

明日、学校これで行くから♡

22:08



といった記憶が：

えっ？ちよ、

[illegible]



彼女の口が音もなく動く

(う・そ・だ・よ♡)

彼女達はその場を後にしてから
数分後メッセージが届いた



ゆみ



今日



ゆみ

旧図書館の裏に来て

12:07

戸惑いは後にして、
俺は旧図書館裏へ向かった



利用者が少ない旧図書館

その裏となればほぼ人の来ない所だ

あ、ここだよ

そこで、彼女が待っていた



なによその顔♪

ノーパンじゃなくてガツカリした？

いや、そうゆう訳じゃ……💧

じゃあ、どうしてここに来たの？

それも急いだ感じでっ？💖

うっ

ねえ、

あたし今…ホントにノーパンよ？

……えっ？

そしてにっこり笑って両手で
スカートをつかんでゆっくりと持ち上げた



画面越しでなく、
初めて見た女子の陰部

きちんと形の整えられた陰毛、
その下に少し見えるピンクの小陰唇

むわっと生のフェロモンを
浴びてバキバキに勃起してしまう



ふふっ、めっちゃ勃ってる♡

ご、ごめん…

ゆみさんの、その、
そこが…とても綺麗で…

「ゆみ」って呼んで♡

あたしもこれから
「ハル」って呼ぶから

いい？わかった？♡

……う、うん

その……ゆみ

そうそう♡

ところでハルは…
キスしたこと、ある？

それは……まだだけど

へえ、そうなんだ〜……♡

じゃあ、ちょっと
目とじてくれる？

…目を？

あたしが良いって言うまで
開けちゃダメだからね？

わかった？

わ、わかった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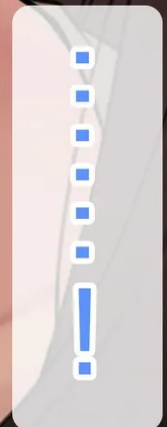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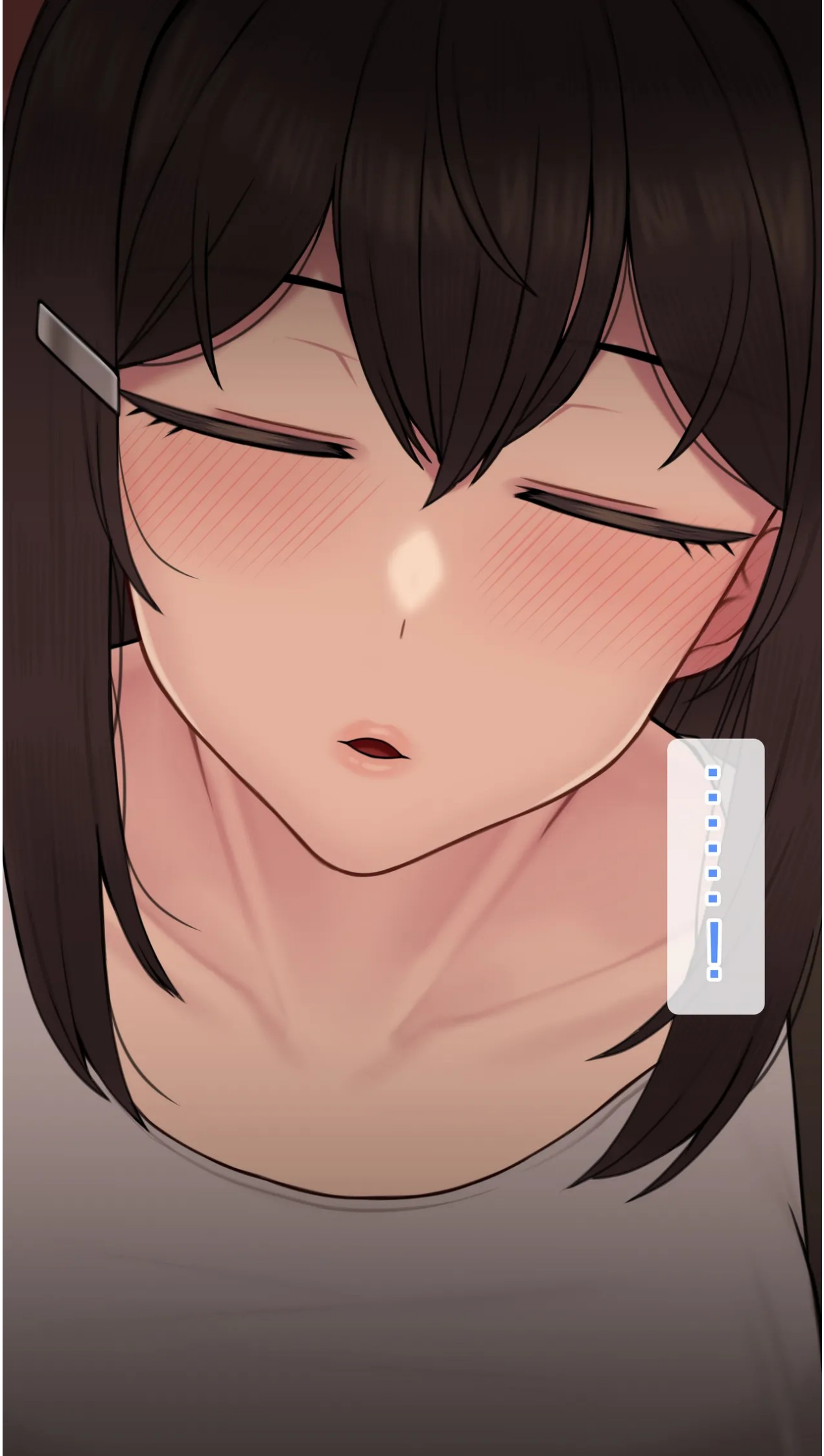
目をゆっくり閉じる

彼女の足音と気配が近づいてくる

多分、俺をからかうつもりなんだろう

近づいてくる彼女の甘い香りが鼻をくすぐってくる

俺の顔を掠める風につい目を
開けてしまった瞬間……





目、
開けちゃ
った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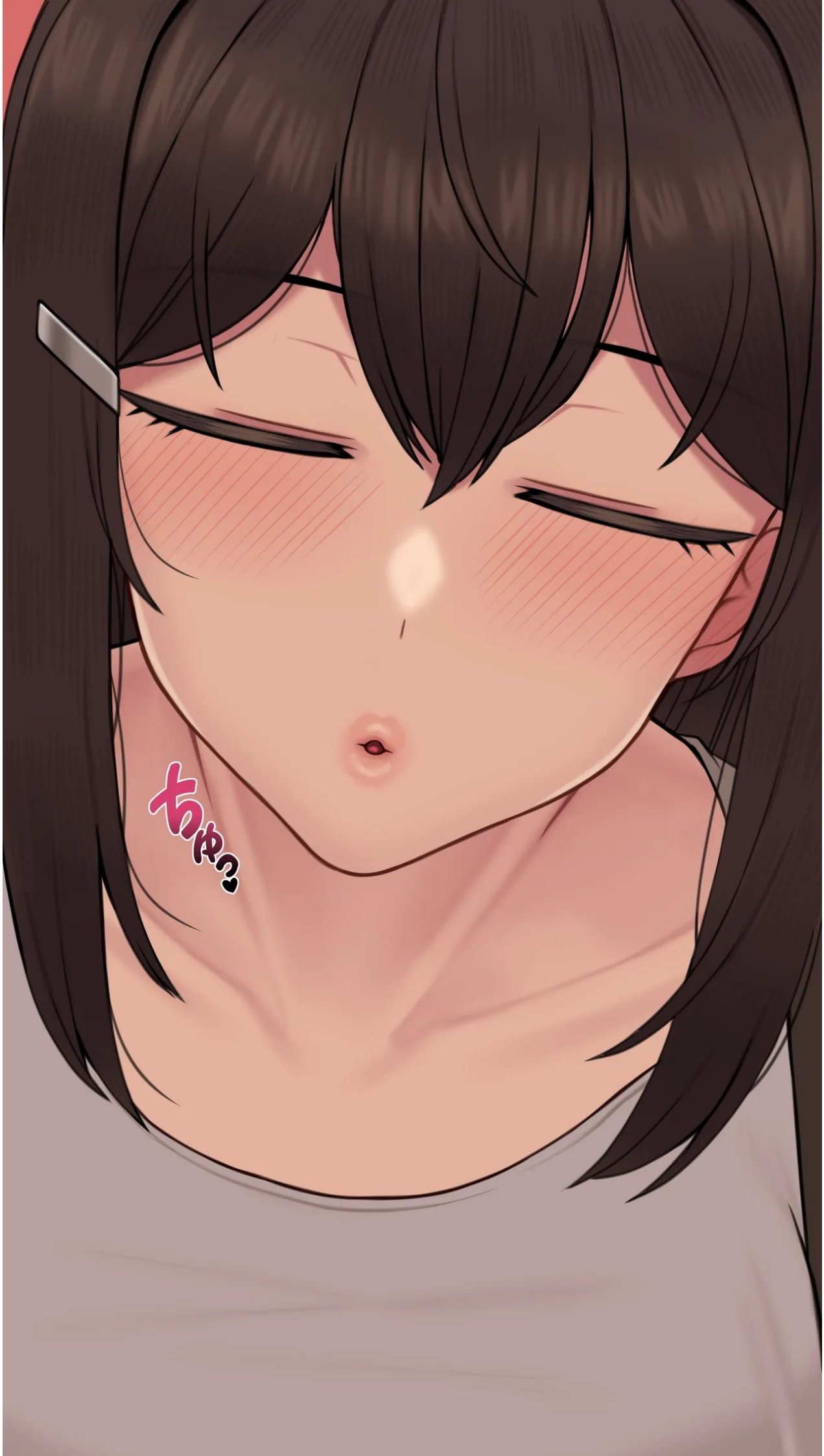
あ



あ、えっと…

ニヤニ

その、風が…





それじゃ、
また明日ね
♡

その温かく柔らかい感触は、

しばらく俺の唇に残っていた

さっきまで
先輩とセックスしたよ♡

もちろん、快楽貪り目的の
無責任セックス♡

一晩かけて子宮にパンパンに
注がれた濃いザーメン♡

子宮の中に先輩の強精子泳がせながら、
ノーパンで講義受けに行くから♡



ほら♡

昨日たっぷりセックスして、
そのまま来ちゃった♡

子宮の中、先輩のザーメン満タンしてると
おもったら興奮しちゃって…

少し漏れちゃったあ♡



どう？アタシのアソコ♡

とくっても気持ちいいこの穴、
もう二人のチンポが味わったんだよ♡

こんなに近くにいるのにアタシは
まだ一度も味わってないんだよね♡

正



ゆみ



今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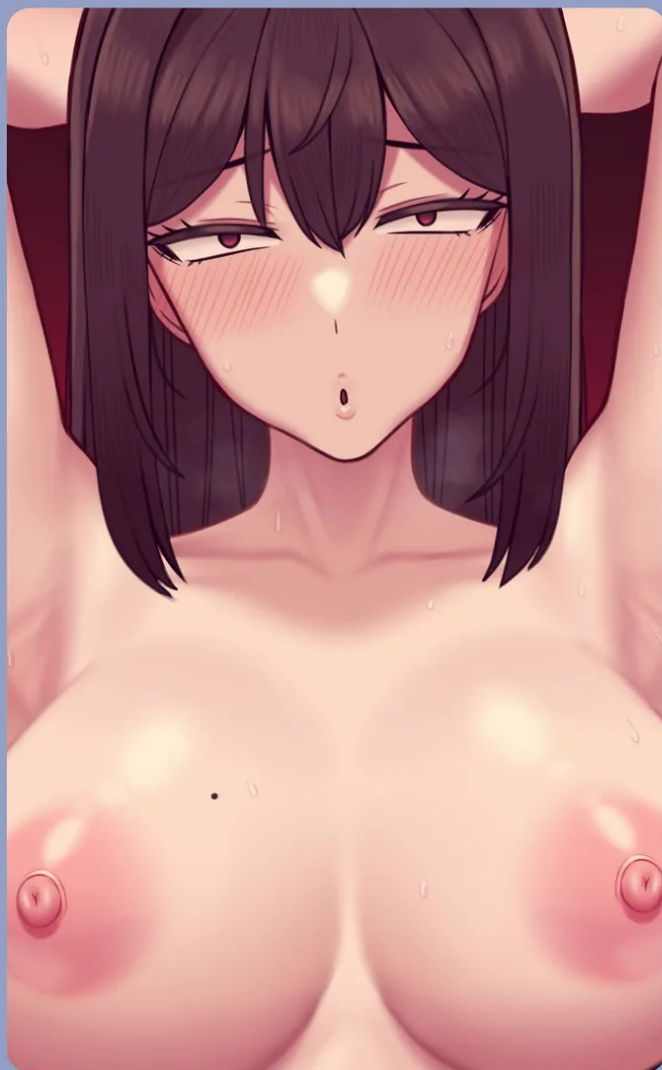


ゆみ

これ、先輩とセックスしたとき撮られた写真♥



ゆみ



ゆみ

こんなトロ顔晒しちゃってるなんて
自分でも思わなかったよ……♥



ゆみ

めっちゃくちゃ気持ちよかったからね♥



想像してみて？♡

ビンビンに勃起したちんぽの上に
股がって激しく腰を振りながら…

先輩のチンポと子宮口
ちゅっちゅさせながら

濃厚ザーメンびゅるっ♡
びゅるるるる♡♡♡

アタシの中を満たしていく姿を♡





교실을 나오자,
친구와 함께 나온
그녀를 보았다

그녀는 과에서
인기가 상당히 많아,

보통이라면 나같은
아싸와는 접점따윈 없다



아

눈이 마주쳤다



그녀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
스커트의 끝자락을 잡았다

문득, 어제의
메세지가 생각난다



유미



오늘



유미



22:08



유미

내일 학교, 이렇게 갈거니까

22:08





라고 했던 기억이...

엇, 잠깐,

여기서...? 💧



그녀의 입이 소리없이 움직인다

(뽕 · 이 · 야♥)



그녀들이 자리를 떠나고
몇 분 후 메세지가 도착했다



유미



오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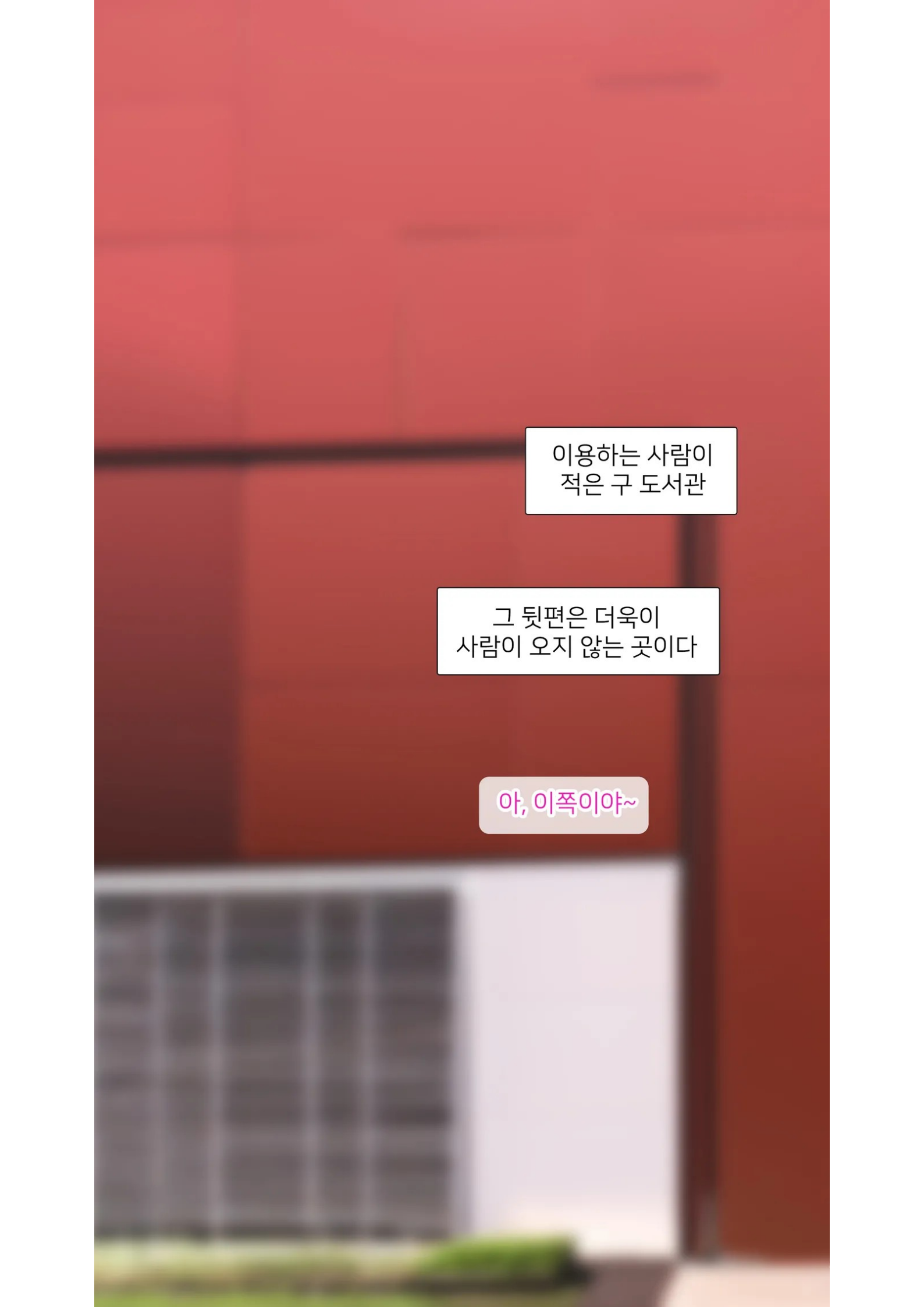
유미

구도서관 뒷편으로 와

12:07

당황함을 뒤로 한채,
나는 구 도서관의
뒷편으로 향했다





이용하는 사람이
적은 구 도서관

그 뒤편은 더욱이
사람이 오지 않는 곳이다

아, 이쪽이야~



그곳에 그녀가
기다리고 있었다



뭐야~ 그 얼굴♪

노팬티가 아니라
실망했어?

아니, 그런게 아니라.....💧

그럼, 왜 여기 온거야?

그것도 급한듯이~?♥

웃



있잖아,

나, 지금 진짜 노팬티다?

.....에?

그리고 그녀는 빙그레 웃는 얼굴로
치마 자락을 양손으로 걷어올렸다



화면 속이 아닌,
처음으로 본 여자의 그곳

깔끔하게 정돈된 음모,
그 아래에 조금 보이는
핑크색의 소음순

흑하고 전해오는
생생한 페로몬에
발기해버리고 말았다



후훗, 엄청
서버렸네♥

미, 미안...

유미양의, 그, 거기가...
엄청 예뻐서...

「유미」라고 불러♥

나도 이제부터
「하루」라고 부를테니까

어때? 알았어?

으, 응.....

그.....유미야

좋아 좋아♥



그런데 하루는...
키스한적, 있어?

그건.....아직인데

헤에~
그렇구나아~...♡

그럼, 잠깐
눈 좀 감아줄래?

눈?

내가 괜찮다고 할때까지
뜨면 안되니까말야?

알았어?

아, 알았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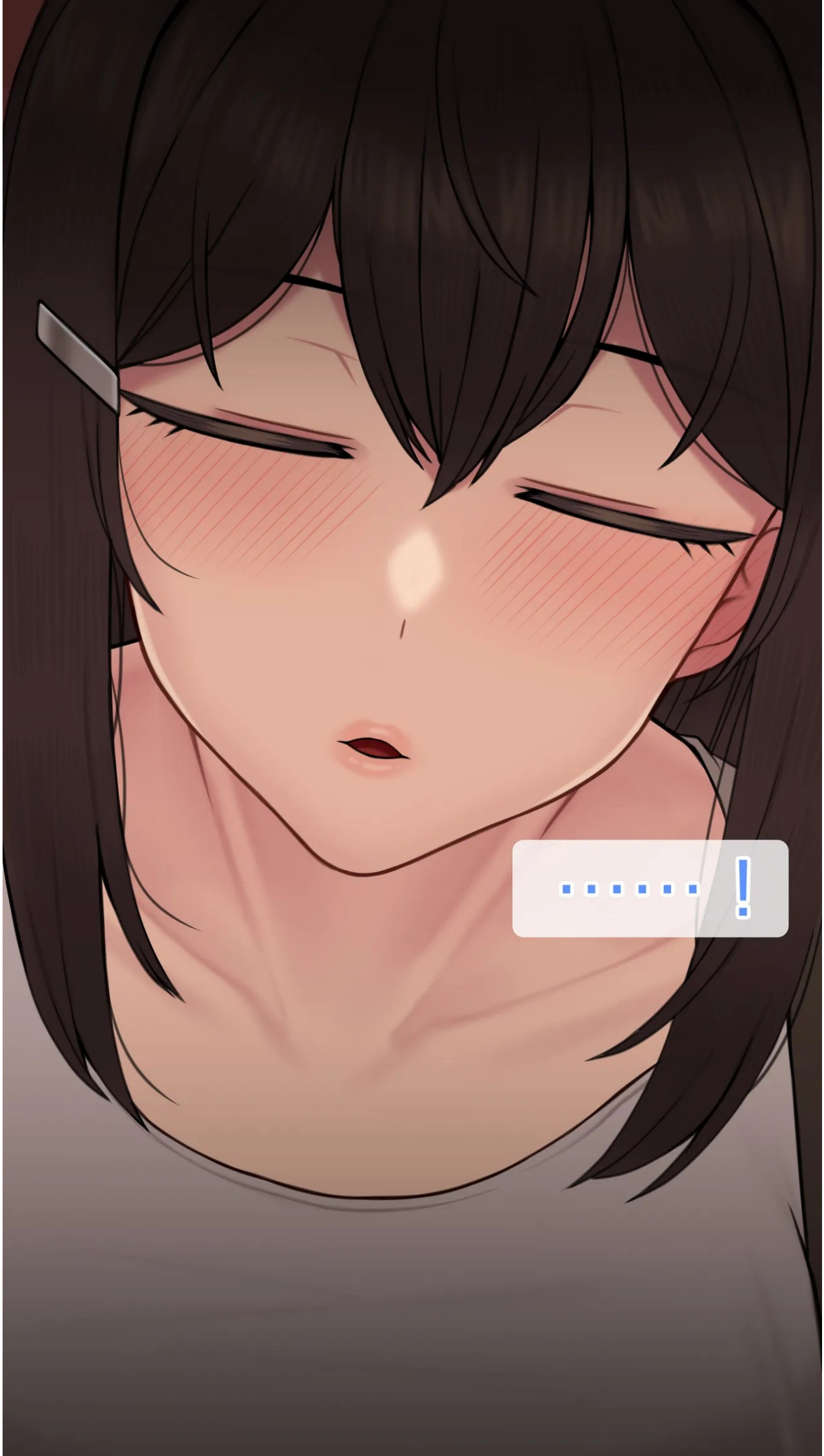
눈을 지긋히 감는다

그녀의 발자국 소리와
기척이 다가온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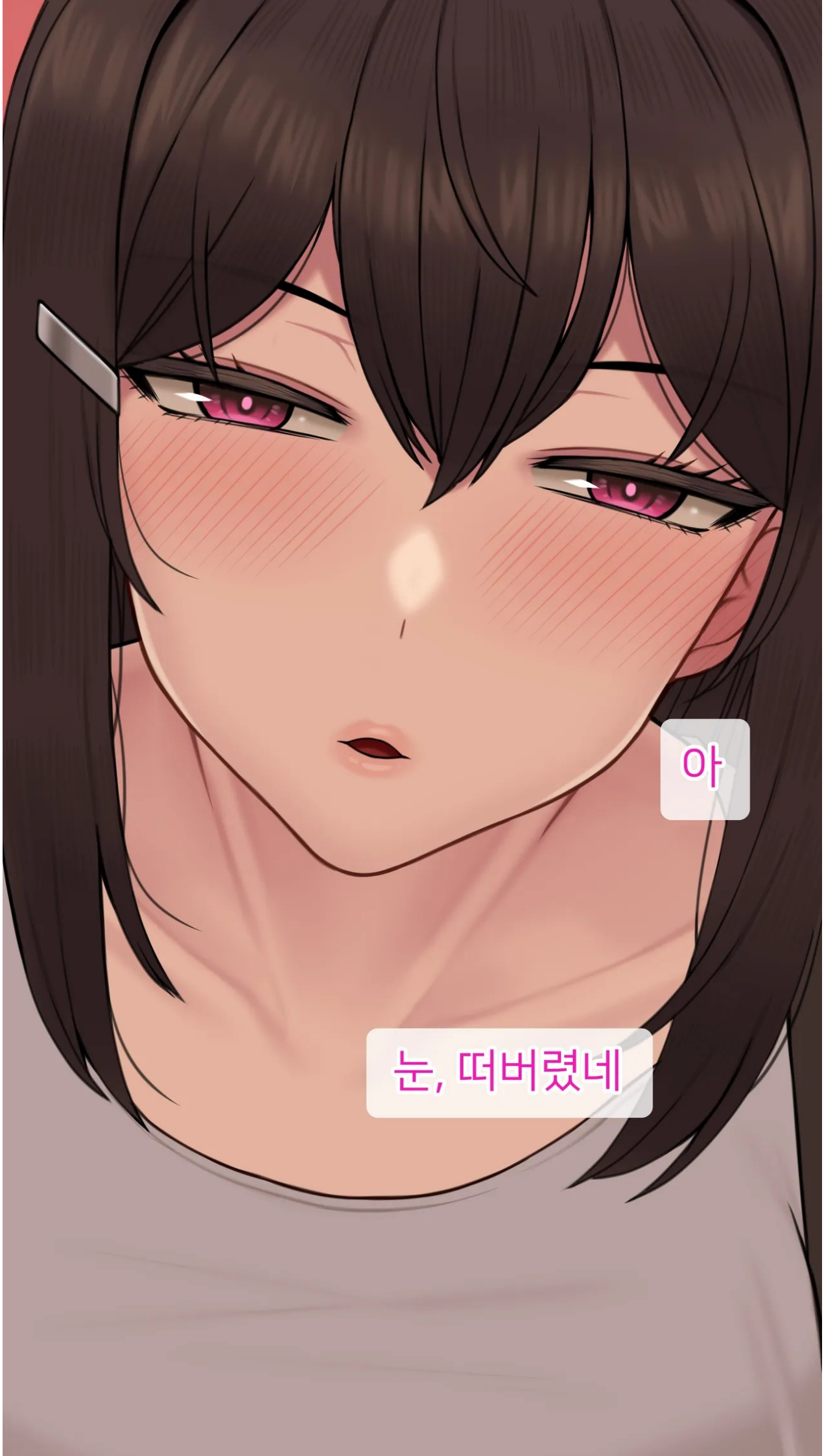
아마도 나를 놀릴 생각이겠지

다가오는 그녀의 달콤한
향기가 코를 간지럽힌다

내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
그만 눈을 떠버린 순간……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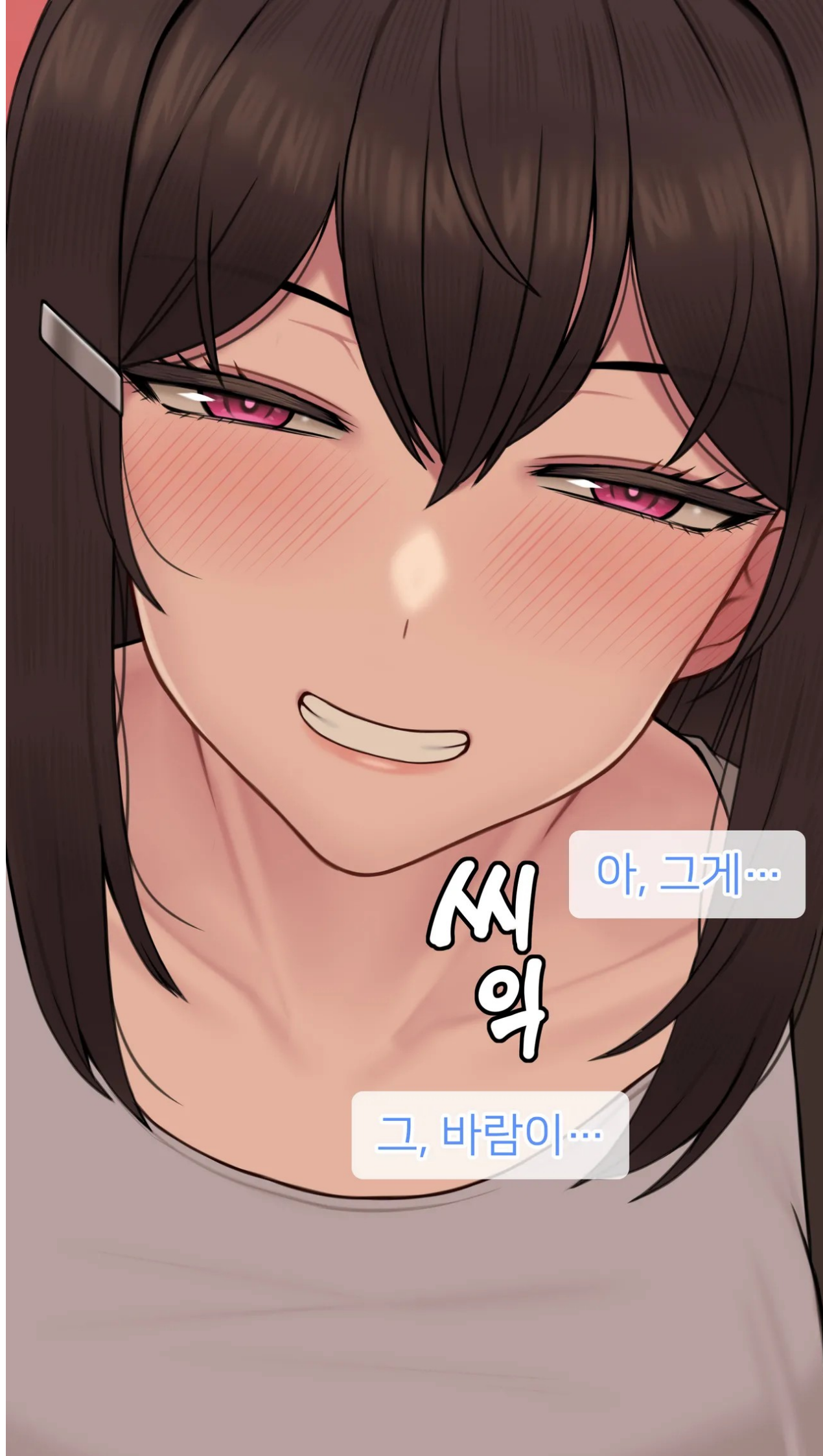


.....!



아

눈, 떠버렸네



씨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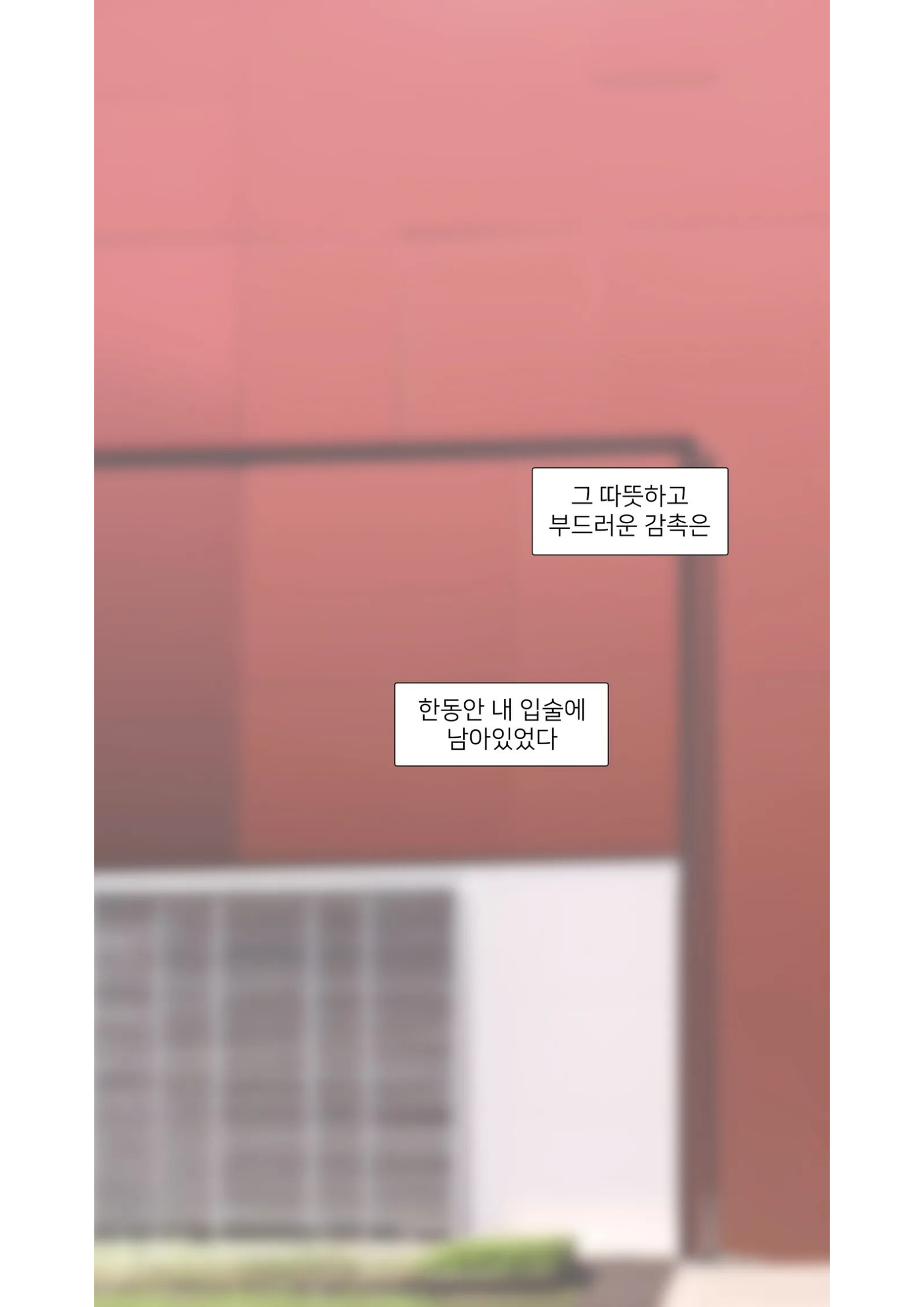
아, 그게...

그, 바람이...





그러면 내일 봐♥



그 따뜻하고
부드러운 감촉은

한동안 내 입술에
남아있었다

방금까지 선배랑
섹스했다구♥

물론, 쾌락 목적의
무책임 노콘 섹스♥

밤새도록 자궁에 가득
담은 진한 정액♥

선배의 강한 정자 자궁에
헤엄시키면서, 노팬티로
강의 들으러 갈거니까♥



봐봐♥

어제 듬뿍 섹스하고나서,
그대로 와버렸어♥

자궁안이 선배의 정액으로 가득
찼다고 생각하면 흥분해버려서...

조금 새버렸어♥

어때? 내 보지♥

엄~청 기분 좋은 이 구멍,
벌써 두명의 자지가 맛봤다구♥

이렇게나 가까이 있는데도
넌 아직 한번도 넣어보지 못했네♥

코



유미



오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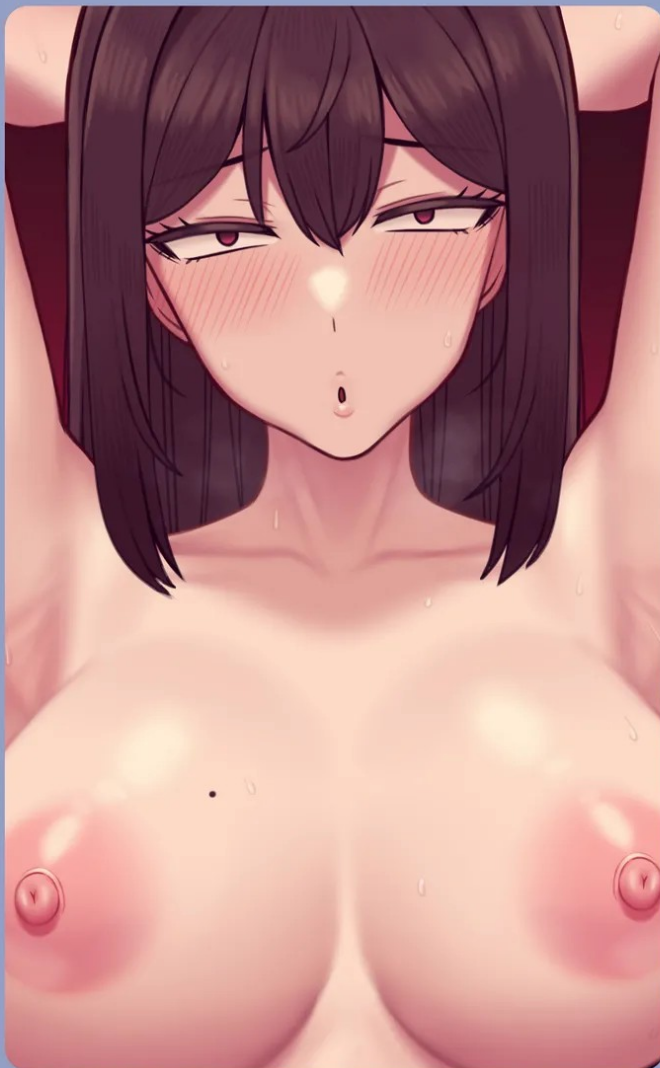


유미

이거, 선배랑 섹스할때 찍은 사진♥



유미



유미

저렇게 천박한 표정 지을 수 있는줄
상상도 못했어...♥



유미

엄청 기분 좋았으니까 말야♥





상상해봐?♡

딱딱하게 발기한 자지 위에서
격렬하게 허리를 흔들며...

선배의 자지와
자궁 입구를
쭈웃쭈웃 하면서

특농 정액 뷰루웃♡
뷰루루루웃~♡♡♡

내 안을
채워가는 모습을♡

















